

이긴자 일대기【9】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다. 조희성 주님은 평양 신양디 형무소에서 한 달 반 쯤 지난 어느 날 오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모두들 걸음을 걸을 수 없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거어서 나오기도 하였다. 서산으로 지는 햇빛이 내리쬐는 바깥으로 나왔지만 모두들 마치 암흑 속의 동굴에서 오래 갇혀 있다가 나오는 것과 같이 잠시 눈을 뜨지 못했다. 인민군들은 죄수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한 30분쯤 운동을 시킨 다음 트럭에 태웠다. '해가 넘어가는 오후에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모두들 불안한 심정으로 차에 다 몸을 실었으나 차는 곧 출발하였다.

트럭에서 내려보니 도착한 곳은 평양 서포 뒷동산이었다. 그곳은 서울의 망우리 공동묘지같은 평양시 근교의 공동묘지인데, 동산 7부 능선쯤에 큰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인민군들은 죄수들을 총살시킨 후 거기다 묻으려는 작정이었다. 500여 명을 모두 총살로 죽이는데 한 번에 열 명씩 총을 쏘 죽이는 것이었다. 제일 마지막에 총살당하는 차례에는 여섯 명이 서게 되었는데 그 속에 주님도 끼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오백 명이 죽는 광경을 끝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총탄을 맞고 죽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쓰러지는 데 반해, 총탄을 맞고 죽는 여자들은 뒤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두 발의 총탄이 죄수복 카라에 스쳐 지나감으로써 기적 같은 생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조희성 주님의 총살집행이 다가왔다. 큰 구덩이에는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면 가까이 올라와 있었고 총잡이는 불과 30m 전방에서 총구를 겨냥하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은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 이 영혼을 맡아 주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였다. 그때는 예수를 증거하다 죽는 것이 순교인 줄 알았을 때였다. 불현듯 부모님과 가족들 얼굴이 활동사진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순간 '탕! 탕!' 하고 두 발의 총탄이 불을 뿜자 주님은 기절하고 말았다. 인민군들은 마지막 시체 6구를 시체구덩이에 던졌다. 그리고 그 위에 소나무 가지들 꺾어 얹고 삼으로 모래흙을 퍼서 대충 덮고는 떠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님은 정신이 들기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금 전에 총살당한 것까지 기억이 났다. '여기가 천당인가 지옥인가?'하고 알 수가 없어 허벅지살을 꼬집어보니 아프기에, 내가 다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님의 몸 위에 시체 두 구가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나무 가지가 얹혀 있었으며 흙이 1~5cm 정도 덮였는데, 죄수복의 크고 넓은 카라가 얼굴 일부와 코를 덮고 있었기에 마땅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질식하여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질식당하지 않게 죄수복 카라로 보호하셨던 것이다.

그 시체더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게 귀를 기울여 보니 아직 죽지 않은 자의 신음소리였다. 그 엄청난 500여 구의 시체 때문에 살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곧 신음소리로 그치고 마는 것이었다. 주님은 필사적인 힘을 다하여 시체 두 구를 헤치고 일어나서 상처가 있는지 온몸을 점검하여 보니 다행히 상처는 한 군데도 없고 죄수복 카라에 총탄이 지나간 흔적으로 구멍 두 개가 나 있을 뿐이었다.

'500여 명을 총을 쏘아 죽였으니 마지막에는 총열이 별갈게 달아 총구의 끝이 약간 넓어져 총알이 빗나갈 수 있었으리라' 하고 생각도 해 보았으나 불과 30m 전방에서 쏘았는데 명중이 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려나까 제일 마지막에 총살을 당하게 되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여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이곳에서 저 혼자 살아남은 것은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경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살 집행에서 기적으로 살아난 후 불덩어리와 생수체험

총살 집행장에서 기적으로 살아난 조희성 주님은 철쭉 같은 어둠에 싸여 어딘에 있는지 몰라서 일단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산 정상은 서포 뒷동산이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아래에 불빛이 보여 쳐다보니, 그 먼 곳에서 불덩어리가 날아오더니 주님의 가슴에 와서 '깡'하고 부딪치면서 온몸은 불덩이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불빛 나오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기도하니, 다시 번쩍하고 불덩어리가 날아오더니 가슴에 부딪치며 '그레, 그레' 하는 암시를 주는 것이었다. 주님은 두 번째 불을 받았을 때는 시원한 생수가 목에서부터 아랫배까지 강하게 연결되는 것이었다.

목사의 딸 이양숙을 만나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뜻으로 알고 그곳을 향해서 들을 지나 산등성의 7부 능선을 따라 걸어 가니 여러 채의 집이 있는 마을이었다. 가는 중에도 간간히 인민군이 지나가므로 인민군 기적이 나면 숲속에 몸을 숨겼다 가지나기면 또 가고 하여 불빛이 나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 불빛은 어떤 외딴집 부엌에서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것이었으며 전깃불이었다.

주님은 그 부엌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니, 한 처녀가 설거지하는 중이었다. 부엌문을 열고 그 처녀에게 말한 첫마디가 "선생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애절하게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누가 들어도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었다. 그곳은 인민군의 점령 하에 있는 지역이니 인민군

에 관련된 주민이라면 영락없이 불뿔이 죽을 운명인데도, 어린애같이 순진하게 "나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인데 인민군에게 불뿔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500명을 죽이는 서포 뒷동산의 총살 집행장에서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저를 살려주소서!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평생을 두고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신분을 밝히고 그간의 일들을 울면서 말했다.

이 처녀는 뜻밖의 일이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주님의 옷과 얼굴은 다른 시체에서 흘러내린 핏물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또 오랫동안 옥중생활로 모발이 많이 길어 있었기에 누구든지 처음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처녀는 인민군과 관련이 없는 교회목사의 막내 따님으로 기독교 신자였다. 조금 전에 산에서 총소리가 오랫동안 나서, 처녀는 '혹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주기도문을 외워보라는 이양숙

이 처녀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주님의 말을 듣고, "그럼, 교회 나가세요?" 하는데, 처녀에게서 교인 같은 냄새가 풍겨서 "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처녀가 냉정한 말씨로 "그럼, 주기도문을 외워보시지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주님은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나니까, 그제야 처녀는 "아! 우리 동지시로군요"

하고 안심하더니 먹을 것을 갖다 드릴 테니 마루에 앉으시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더니 반으로 쪼갠 삶은 고구마 두 쪽을 가져다주면서, "우리는 쌀이 없어서 저녁밥이 고구마뿐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이양숙이었고, 평양 사범전문학교 출신으로 주님보다 한 살 더 많았다. 처녀가 하는 말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큰 오빠는 의사인데 지하에서 반공운동을 하고 있으며 둘째 오빠는 김일성 바로 밑에서 일하는 노동당 중앙위원이고 셋째 오빠는 반공청년으로 아버지와 큰오빠를 따라서 산속에 숨어서 남한과 미국 비행기가 공습할 때면 무전을 쳐서 어디에 군수물자가 있고 어디에 무슨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처녀의 둘째 오빠는 노동당 중앙위원으로 김일성의 총애를 받는 진짜 빨갱이었다. 그런데 그 둘째 오빠가 조금 있으면 집에 온다는 것이었다. 주님은 그 말을 들으니 식은땀이 흐르며 입이 말라왔다. 조금 전까지 빨갱이들에게 붙잡혀 사형집행을 당하고 왔는데 또 빨갱이에게 잡힌다면 그야말로 끝장이었다. 그 처녀가 먹으라고 가져온 삶은 고구마 두 쪽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성의는 고맙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 빨리 숨겨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하단에 계속

토굴생활

한 달 간의 토굴생활

이양숙은 티도 없이 맑은 음성에다가 희디흰 얼굴을 한 주님을 데리고 마당 끝으로 갔다. 거기에는 땀짜리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을 당기니 그 속에 토굴이 있었다. 공산치하에서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이 집 식구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굴 속에는 요와 이불, 등잔불, 책상 등과 분세 비키 당사(黨史) 등 공산 이념 서적들도 많이 있었다.

주님은 굴속에 있는 동안 공산 이념 서적들을 모조리 독파한 후 공산주의는 얼마 못 갈 것을 직감하였다.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못 가진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기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소중히 간직하지도 못할 뿐더러 밤잠 안 자고 땀 흘려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빼앗기니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도 구태어

힘써 일할 필요성을 못 느껴 일을 게을리하게 되므로 이런 사회는 날이 갈수록 폐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그 후 주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모순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민주 진영으로 전향시켰다.

주님이 토굴 안에서 한 달 가량 생활하는 동안 이양숙이란 처녀는 매일 밤 12시만 되면 도시락 두 개씩을 가져다주었다. 그녀는 주님이 서울 사람이라 고구마를 못 먹는 줄 알고 비밀리에 교인들에게 연락하여 자기들도 잘 못 먹는 귀한 쌀을 조금씩 모아서 밥을 해오는데, 이는 보통 정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아는 주님은 그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절반 정도 먹고 도로 내보냈다.

그리고 도시락이 들어올 때마다 그날 그날의 전황을 쪽지에 적어 같이 보내왔다. '지금 아군이 인천에 상륙을 했습니

다, '아군이 지금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아군이 38선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굴속에 있으면서도 9.15 인천상륙과 9.18 서울수복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38선을 지나 지금 평양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평양을 점령할 것입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평양을 점령했습니다'라는 쪽지가 들어왔던 것이다.

그때 주님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됐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하였다. 평양 점령 소식을 전해들은 그 다음날, 토굴 문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게 몹시 긴장하였다. '혹시 후퇴하다 돌아온 인민군들이 아닐까?' 하고 불안하였는데, 누군가가 토굴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땀짜리 나무를 제치더니 굼직한 목소리로 "동지! 동지! 해방됐시오! 이제 나오시라요" 하는 것이었다. "택은 누구십니까?" 하고 주님이 묻자, "내래 빨갱이 놈들하고

싸우느라 산속에 들어가 있던 김명식이 외다. 조동지 나오시라요."라고 화답하는 것이었다.

주님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굴속에서 나와 보니, 집집마다 태극기가 달려 있고 인민군이 깨미떡처럼 새까맣게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평양에서 30리 떨어진 대동군 부산면 용곡리는 아직 국군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숨어 있던 반공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용곡리 도로에는 인민군들이 줄지어 북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총 하나 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를 목격한 주님은, '아! 군대라는 것은 사기가 떨어지면 완전히 죽는 것이나 한가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이 기가 죽으면 죽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이치도 터득하였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1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1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
The Bible says that God Himself will come as the Savior!

하나님이 곧 여호와라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11)
God is the LORD; and besides me there is no savior (Isaiah 43:11)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이나 우상이나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며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신명기 5:7-9)

Do not make for yourself any gods or idols or any images other than God; do not bow down to them or serve them (Deuteronomy 5:7-9)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라. 그는 열국의 왕들을 다 굴복케 하며 만민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오,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1-9)

I will raise up a righteous man from the farthest corner of the earth in the east. He will subdue all the kings of the nations and rule over all people. I, the LORD, am the first, and with the last; I am He (Isaiah 41:1-9)

너희 하나님이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스바냐 3:17)
Your God is among you, a mighty one who will save (Zephaniah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32)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everyone that calleth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for there shall be one whom the LORD calleth. (Joel 2:32)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20-22)
Those who carry about wooden idols and pray to a god who cannot save are ignorant. There is no God besides me, the LORD, the God who saves. (Isaiah 45:20-22)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시편 68편 20절)

God is a God of our salvation; our escape from death is through the Lord God (Psalm 68:20)*

by Alice

1면에 이어서

권좌에 앉아있던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죄정하시면 그것이 백보좌(百寶座)가 되는 것이다. 이로서 마침내 무소불위(無所不爲) 전지전능(全知全能)의 감로해인 이슬성신(이사야 26:19)을 임의용사해서 마귀를 멸하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격암유록 「갑을기」에서는 삼처박수거지(三處朴誰可知)라고 하고 있다. 궁궁으로 박활인(朴活人)이 오고 궁궁 박의 영적 지식인 일남일녀가 박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합해서 삼처박이 되는 것이다. 삼림출세천수박(森林出世天數朴)도 마찬가지로 뜻이니 박(朴)을 목(木)으로 바꾸어 기록했을 뿐이다. 박활인은 도부신인(桃符神人)에서 말하는 박대선(朴泰善)이다.

삼(三)은 상신사 중신사 하신사요 림(林)은 상진사와 하진사를 말한다. 중신사는 둔갑장신으로 여자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강증산 선생이 두 사람을 말했던 것이다. 청림도사(靑林道士), 강증산 선생이 말한 사두용미(蛇頭龍尾)도 또한 같은 의미이다. 사(蛇=巳)는 궁궁이요 용(龍=辰)은 을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두용미는 진사성인을 말하니 결

국 궁궁을 정도령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삼인동행(三人同行), 김제 금산사(金山寺)의 삼층전(三層殿)도 사세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어야 미륵불이 완성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수운 선생이 말한 시천주(侍天主)의 완성성이요 곧 동학의 완성이라 할 것이다.

강증산 선생은 상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요 도통 줄을 대두목(大頭目)에게 내려주어 대두목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궁궁의 하나님이 을을 정도령에게 도를 전하고 마지막에 정도령이 천지개벽을 한다는 말이다. 대두목 정도령은 이윤(伊尹)의 도수와 문왕(文王)의 도수를 말았으니 이윤의 도수는 오십이지사삼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로서 오십에 도통하고 문왕도수는 칠년옥고(七年獄苦)에 있으니 칠년 동안 옥고를 치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이유는 천지개벽 즉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바꾸고자 함이다. 강증산 선생은 맹자(孟子)를 역적 놈이라고 꾸짖었으나 맹자의 고자장(告子章)만은 잘 알아두라고 한 의미는 정도령이 겪는 고난의 섭리(攝理)와 정도령이 천지개벽의 주인공임을 여실히 표현했기 때문이다.

「궁을론」에서는 율놀이에 빔대어 때의 흐름을 알려

주었으니 척사소목단동치기(欖槽消木檀東致基) 오묘일갈단동불출(五卯一乞枌東在出)이라고도 다섯 번이 나온 이후 마지막으로 율을 던지니 걸이 나왔다. 걸은 양(羊)으로 구세주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는 도를 세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개를 세고 또 그 다음에는 걸을 세게 될 것이다. 이로서 율판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율판이 끝나려 하고 있다. 도 개 걸을 뜻하는 삼일병화(三日兵火)에 만국통합(萬國統合)이 눈앞에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 남북화합 통합은 만국통합에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국제정세가 순식간에 급변하고 한국의 방산무기(防産武器)와 원전(原電)이 전 세계를 휩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자화변위식물(原子化變爲食物) 그러나 이것도 해인만 갈지 못하다(原子不如海印 원자불여해인)고 하였으니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감로해인은 삼마광선(殺魔光線)으로서 사망의 신인 마귀를 죽이므로 죽을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시지부지(時至不知)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정도령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시시급급망망(時時急急茫茫)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